

# 당신 회사 동료가 에이즈감염인이라면?

레드리본은 에이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2005년 한 해 동안 하나의 주제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에이즈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국민들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한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얼마나 난잡한  
생활을 했음”하는  
생각부터 잘못**

글쎄! 생각해 본 적도, 겪어 본 적이 없  
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무척 힘  
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내 생각을 솔직

히 표현한다면 아마 그 사실을 들음과 동시에 약간의 거리감이 생길 거다. 그리고 우선 죽음부터 떠올리고, 동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 얼마나 난잡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 후 에이즈에 대한 불안감부터 시작해서 혹시 나한테 전염되지 않나?, 혹 나도 이미 걸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등 무수히 많고 복잡한 생각이 생길 것 같다. 또한 에이즈 검사를 한다든지 그럴 것 같다. 아무리 매체에서 피부의 접촉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리감을 두고 상대를 할 것 같다. 웃기만 스쳐도 불안한 마음에 아마 일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섹스가 아닌 다른 감염체로 인한 감염이라 해도 우선은 섹스를 생각할 것이고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이라고 취급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또한 걸린 동료보

다 건강한 동료들을 위한 조치이라고 설명할 것 같다.

윤영규(광고회사 AE, 36세)

**팀 역량에  
방해된다면  
퇴직을 종용해야**

나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 중 한명이  
이런 병에 걸렸다면 생각만 해도 무  
서운 상상이다.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첫째, 회사 부서원이 그를 회피할 것이다. 둘째, 본인이 회사를 그만 둘 것이다. 셋째, 회사에서 퇴직을 종용할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둘째인 본인이 회사를 그만 둘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최대의 목표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팀 역량에 방해 요소가 있다면 전체적인 팀원을 위하여 희생시켜야 한다. 사회는 냉정한 곳이고 또한 사기업은 종업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곳이다. 따라서 그는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모두다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냉정한 현실에서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에 기여할 수 없다면 회사 또한 그를 방출시킬 것이 분명하다.

서재훈(신탁회사, 32세)

**병원에 가지 않을까?**

나의 회사 동료가 에이즈 감염인이라니... 한동안 낮이 나간 것 같다. 말로만 들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줄만 알았던 에이즈 감염인이 내 주위에 있었다니... 너무나도 놀라 벌어진 입이 다문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동안의 쇼크상태에서 벗어나, 나는 재빨리 나의 기억들을 끄집어 낼 것이다. 내가 그녀(또는 그녀)와 접촉한 적이 있었나? 그와 같이 식사한 적이 있었나? 그와 가까이에서 대화한 적이 있었나? 등등. 물론 단순한 접촉이나 침 분비물 정도로 에이즈에 전염되지 않는다는 상식 정도는 나에게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난 결국 병원으로 향할 것 같다. 확실히 해두기 위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볼 것이다.

병원에 다녀온 후부터는 왠지 그와는 멀어질 것 같다.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에게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더 이상 그는 나에게 평범한 직장 동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주환(의료전문케이블 TV 홍보담당, 29세)

**외면하고 배척할듯**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나만 알게 되었다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큰 잘못 같고 오히려 그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업무적으로 부딪힐 때마다, 동성이라면 화장실에서 볼 때마다, 같이 식사를 해야 할 때마다 껄끄럽고 불편해지는 건 당연하다. 에이즈라는 게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면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과 의심에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을 거 같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동료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이 상사한테 말을 하겠다. 내가 직접 그 사람하고 단둘이 만나서 해결

내 동료가 에이즈 감염인?



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나쁜 짓을 한다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하는 마음에서 회사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다. 그 동료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외면하고 배척할 거 같다.

유기용(건설회사, 29세)

**스스로 그만뒀으면...**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처음에는 막연한 충격, 그냥 놀라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치명적 불치병으로서의 놀라움보다는, 에이즈 그 자체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에이즈는 일반적으로 불건전한 성관계를 통한 감염으로 알고 있기에, 아마도 기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면들은 사라지고 오직 에이즈 이 단어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버리지 않을까 싶다. 사회에서 소외된다는 동정심보다는 나 또한 그 사람과 같이 한 사무실에서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건 꺼려하리라. 아마도 제발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할지도 모르리라.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병원체의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성 이전에 내 본능이 그 사람과의 접촉으로 나도 그 사람과 같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 사람의 불행에 약간 안쓰러워 하기는 하겠지만 별반 달라지는 게 없지 않을까 싶다.

이수미 (교직원, 31세)